

발표요약문

해운의 탈탄소화

키워드: 기후변화, 탈탄소화, 컨테이너 해운

기후변화 도전과제에 대한 전 세계적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영국은 10월 31일부터 11월 12일까지 글래스고에서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를 개최한다. COP26는 파리협정과 유엔기후변화협약 목표 달성을 위한 행동을 촉진하기 위해 당사국들을 한 자리에 모으게 될 것이다.

한편 해양 산업의 탈탄소화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와 토론도 진행되고 있다. 국제해사기구(IMO)가 탈탄소화 목표를 제시했고 이에 따라 주요 선사와 용선선사들이 탄소가격 책정을 위해 다양한 시장 중심 조치들을 제안하고 있으며 LNG가 컨테이너선 연료로 보편화되고 있다. 머스크는 메탄올을 연료로 사용하는 16,000 TEU급 컨테이너선을 발주했다. 해운이 배출에서 차지하는 역할에 대한 인식이 기후 활동가들 사이에서 더욱 높아지고 있으며 화주들에 압박이 커지고 있다.

본 발제에서는 컨테이너 해운의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한 조치를 개괄하고 중기적 영향을 살펴본다.